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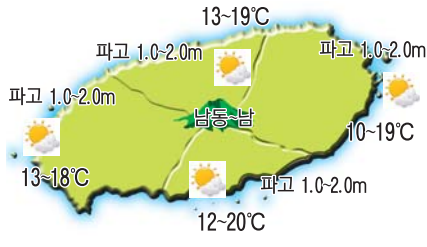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와 생활

11월 12일 화요일 음 10월 16일 (8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 지겠다. 아침 기온은 10-13°C, 낮 최고 기온은 18-20°C로 예상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오후, and values for precipitation probability (0%) and cloud cover (20%).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해넘이, and times for sunrise (07:02) and sunset (17:38).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and weather forecasts for the next two days.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and indicators for food safety and fog.

월드뉴스

볼리비아 대통령, 대선부정 논란에 사퇴

퇴진 압박 거세져 결국 '백기'

중남미 현역 최장수 지도자인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선거 부정 논란 속에 결국 14년 가까이 지켜온 대통령직을 내놓기로 했다.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야권의 거센 대선 불복 시위에도 버티던 모랄레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미주기구(OAS)의 감사 결과 발표에 이어 군과 경찰까지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하자 결국 두 손을 들게 됐다.

투표 당일 처음 나온 중간개표 결과엔 1:2위 격차가 크지 않아 결선투표가 유력한 상황이었지만, 선거관리 당국이 돌연 개표 결과 공개를 중단한 후 24시간 만에 다시 내놓은 결과에선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다.

10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엘데베르 등에 따르면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날 오후 TV 연설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OAS는 지난달 선거에서 투표 시스템에 여러 '부정'과 '정보시스템 조작'이 발견됐으며,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 선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리일보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한라칼럼



김윤우 무릎의 가치

지난달 25일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것도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차기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나온 '포기' 선언이다.

'포기'의 사전적 의미는 '하던 일이나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리는 것으로 이는 권리를 잃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거나 귀환할 의사가 없는 주어진 권리에 대한 방기 행위'라고 명기돼 있다.

“아니 포기가 됩니까? 부딪혀 보지도 않고...”

책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쌀 등 우리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농업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는 이미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때부터 들어왔던 대책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줄곧 유지해왔던 농업분야 개도국지위로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 등 상당부분에서 혜택을 받아왔다. 관세혜택 중 우리 제주농업의 중심인 감귤과 마늘, 양파에 대한 양허관세율을 살펴보면 감귤이 14%, 마늘이 360%, 양파가 135% 등 비교적 고율의 관세를 매겨 해당 농산물이 시장

에서 가격경쟁력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개도국지위 포기에 따른 WTO가 정한 선진국 의무이행기준에 따르면 감귤은 43%, 마늘은 108%, 양파는 41%로 톱 떨어진다.

정부는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당사자인 우리 농업과 농촌은 매우 불안하다.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농업·농촌은 수년간 되풀이 돼 온 농정실패와 점점 악화돼가는 대내외 여건을 수에 더해 신음하고 있으며 심지어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어 자식처럼 키워온 농산물을 스스로 갈아 엮는 피

끓은 현실을 오늘도 반복하고 있다. 다원적 기능을 가진 농업에 대한 보호 육성엔 헌법이 규정한 국가 책무이다.

우선 감귤, 마늘, 양파 등 제주농업의 중심작물들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하는 한편 보조금 감축률에 따른 보조금 축소문제는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보완해 갔으면 한다.

아울러 지난 4월에 출범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강화이다. 농특위 설치의 문제인 대통령의 제1호 공약이다. 다소 늦게 구성은 됐지만 대통령자문기구라는 위상에 걸맞게 타부처와의 업무조율과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대통령이 직접 농특위를 챙겨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제대로 된 농특위의 역할이자 농업·농촌에 희망을 주는 농정을 펼쳐 나가는 길일 것이다.

엘린마당

독감 예방접종은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한은미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장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바로 독감(인플루엔자)이다. 독감은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외부로부터 침투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병하는 급성호흡기질환이다. 적정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거의 매년 항원 소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계적인 바이러스 유행정보를 종합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매년 초 북반구 당해절기 백신주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인플루엔자 유행시기가 12월~익년 4월 임을 감안해 10월~12월 사이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기후변화 따른 돌발·외래 병해충 확산방지



김효정 제주도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온실가스가 계속 증가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8.5)에 따르면 2100년에 지구 지표 평균 온도가 약 3.7°C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권으로 바뀌며 재배 작물 및 외부 환경조건에 민감한 병해충의 분포와 밀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과수 화상병이 2015년 42.9ha 발생했으며, 2019년 현재는 125.1ha로 지난 5년간 316% 급증했다. 아메리카 대륙 열대·아열대 지역이 원산지인 열대겨세미나방은 유행기에 옥수수·사탕수수·벼 등 주로 벼과 작물의 잎과 줄기를 갠아 먹어 피해를 주는데 2019년에 국내 처음으로 제주도에 발생했다. 제주에서는 2016년 고추에서 처음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병 발생이 확

인 됐으며, 2018년 발생한 파프리카의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병은 타지역 모종이 아닌 도내 자가육묘에서 발생했다. 이는 바이러스 매개충인 꽃노랑총재벌레가 따뜻한 제주지역에서 월동이 가능해 제주에 정착으로 인한 피해 증가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새로운 외래 병해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효과적 방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기후변화로 새로운 병해충 유입 우려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예방을 통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국내 유입 검역·돌발 병해충 공동방제를 통한 피해 최소화, 확산경로 저지, 저항성 품종 개발 등 외래 유입 병해충에 대한 사전 대응 매뉴얼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도내 돌발·외래 병해충의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 생산자 단체, 학계 및 농업관련 기관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예방과 방제로 사전에 농가 피해를 막아야 하겠다.

Advertisement for remodeling services in Jeju, including contact info and services like kitchen remodeling and painting.

Advertisement for Jeju Provincial Government services, including fire safety training and fire alarm installation.

Advertisement for Jeju City Government services, including fire safety training and fire alarm installation.

Advertisement for Seogwi City Government services, including fire safety training and fire alarm installation.